

## 1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건강 체육대회 6일 개막

**“활력 넘치는 인생, 건강이 최고”**

광주에서 전국최초로 노인들을 위한 건강 체육대회가 열린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오주)는 지난달 31일, 오는 6일(수) 광주시 서구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광역시장기 어르신 건강 체육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어르신 체육대회는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인생! 건강이 최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이 삶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건강 체육 대회를 개최해 어르신은 물론, 가족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최초…노인 3천여명 참가****체육·문화·화합 세마당 나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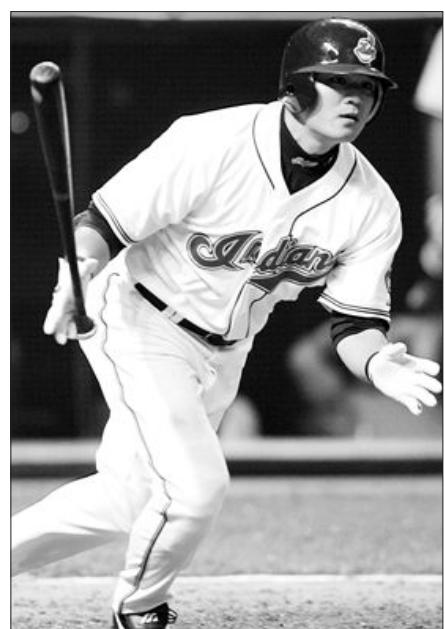
광주지역 4개 구에서 3천여명(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대회는 오전 9시 사물놀이와 음악줄넘기 등의 시전 공연을 시작으로 10시 개회식을 갖고 체육, 문화, 화합 등 세마당으로 나뉘 진행된다.

체육마당은 생활스포츠(커로링, 바스켓 게이트볼), 건강 올립픽(파워 공글리

기, 건강 볼링대회, 전략 줄다리기, 종합 장애물 릴레이) 등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문화마당은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펼치는 레크리에 경연대회와 초청공연으로 이뤄진다.

화합마당은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만세 가족노래자랑, 실버장기자랑, 웰빙퀴즈 청백전, 한마당 대동놀이 등으로 열린다. 이외에 염주실내체육관 야외광장에서는 미용, 건강검진, 수지침, 노인건강용품, 맥주시음장 등의 체험마당이 부대행사로 준비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추신수 홈런성 3루타 3회 가운데 담장 맞혀**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시즌 두 번째 대형 3루타를 날렸다.

추신수는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보론도 블루제이스와 홈경기에서 5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1-0으로 앞선 3회 주자 없는 1사에서 가운데 담장 윗부분을 맞히는 홈런성 타구를 날리고 전력 질주해 3루타를 기록했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흡을 밟지는 못했다. 1회 첫타석에서는 불넷을 골라 나가 2사 만루를 만들었으나 후속타자 라이언 가코가 범타에 그쳤고 5회

에는 낙차 큰 변화구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8회 2-2로 맞선 무사 1루에서 유격수 호수비에 걸려 아쉬움을 남겼다. 추신수는 연장 10회말 원순 마무리 B.J.라이언을 맞아 대타 제이슨 마이尔斯로 교체됐다. 연장 10회말 2사에서 클리블랜드는 자니 파랄타가 라이언에게 끝내기 우월 1점 홈런포를 때려 3-2로 승리했다. 클리블랜드의 거포 트래비스 해프너는 이날 홈런 2개로 전날 40호에 이어 41, 42호를 기록하는 괴력을 보였다. 해프너는 3회 선두타자로 나와 빨랫줄 같은 우월 1점 홈런을 터뜨렸고 8회에도 똑같은 코스로 솔로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대·진**  
2년 4개월만에  
**1군 복귀**

KIA타이거즈 투수 이대진(32)이 지난달 31일 1군에 합류한 후 1일 1군에 등록했다.

지난 2004년 4월 23일 1군에서 맡았던 이대진은 2년 4개월 9일만에 1군에 등록하게 됐으며 지난 2004년도 3경기에서 1패 방어율 10.57을 기록했다.

지난 1999년 2월 하와이 전지훈련시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재활에 들입했던 이대진은 지난 200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대진은 이과정에서 수술과 재활, 경기 출장을 반복하며 지난 2002년에는 타자전쟁을 모색하는 등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 가라!!**

**김수희 9월 1일**

**부강진국  
100%**

청춘 생애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블랙마운틴)



**최호성 등 3명 선두**

**최경주 1타차 4위**

신한동해오픈골프 1R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올해 고국 무대 첫 우승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최경주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서코스(파72·전490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신한동해오픈 첫날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6언더파 66타를 끄러 선두그룹이 된 최호성(33·삼화저축은행), 최혁재(21·우산), 김형태(29·이동수페션) 등 3명에 불과 1타 뒤진 공동 4위에 오른 최경주는 두 차례 준우승에 그친 이 대회 첫 우승에 푸른 신호등을 켰다.

최경주는 1995년과 지난해 이 대회에서 각각 연장전에서 저 준우승에 머물렀고 올해는 국내 대회 우승이 아직 없다.

이를 전인 지난 29일 새벽 5시 한국에 도착해 시차적응도 제 미치 못한 경기에 나선 최경주는 초반 한동안 아이언샷 거리감이 회복되지 않은 듯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작년 US오픈 우승자 마이클 캠벨(뉴질랜드)도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겪으며 최경주와 함께 공동 4위에 포진해 ‘본고장 스윙’을 과시했다.

국가대표 출신 김형태는 버디를 9개나 몰라내 12월 결혼을 앞두고 생애 첫 우승컵을 안아볼 발판을 마련했다.

또 29세라는 늦은 나이에 프로골프 선수가 된 ‘늦깎이’ 최호성과 신인 최혁재도 꽉 꽉 선두에 나서 이번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승했던 김종덕(45·나노소울)은 1번홀(파5)에서 티샷을 OB 지역으로 날려 보기를 허락하는 등 1오버파 73타로 부진, 타이틀 방어에 머구름이 드리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체육중 장태성  
대통령기레슬링 ‘금’**

장태성(광주 체육중 3)이 제32회 대통령기전국시·도대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태성은 지난달 31일 속초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그레고로만형 69kg 결승에서 충남 공주중의 박성주를 2-1로 꺾고 우승했다.

김성환(광주체육중 3)도 그레고로만형 58kg 결승에서 경남 해운중의 조주현을 2-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레고로만형 50kg 신병철(광주체육중 3)은 어렵게 동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woman's face on the left and contains the following text:

-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 가라!!**
- 김수희 9월 1일**
- 부강진국  
100%**
- 청춘 생애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블랙마운틴)